

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생활을 해야

기도문 찬송



“무량대수 마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
 횃수로 계속해서 몽땅 뿌리째 뽑아서 성
 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기로
 짓이겨서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
 불로 태워서 유향불로 박멸소탕 박멸소
 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
 탕 박멸소탕 박멸소탕”

말실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 결전
 에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마귀를 완
 전히 전멸시키니까 그대로 이긴자가 된
 것입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긴자가
 될 차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늘
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. 집에 가서도 일하
 면서 만날 이 기도문 찬송가를 부르세요.
 꼭 다 외워서 부르세요. 사실은 여러분
 들 뭐 설교 듣고 뭐 찬송하고 그런 시대
 는 다 지났습니다.

기도문 찬송을 하면 자신 속의 마귀뿐 만 아니라 이 세상 마귀도 다 죽어

찬송하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
 아직까지도 깨달은 부분이 모자라기 때
 문에 계속하는 것이지, 시기적으로는 지
 냈습니다. 이제 기도문 찬송만 하면 끝입
 니다. 마귀만 죽으면 끝입니다. 그래서 이
 기도문 찬송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
 러주세요.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다음에
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.

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못한
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 죽이는 기
 도를 하면, 그것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
 할 사명이 다 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
 들이 시간 시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, 이
 기도문 찬송가를 제단에 일찍이 나와서
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고 앉
 아 있으면 그대로 자신 속에 마귀는 물론
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귀도 다
 죽습니다.

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귀를 다 죽이는
 역군들입니다. 이 세상 마귀를 전부 죽여
 없애야만 그래야만 죽음의 조류가 끝나
 는 겁니다. 이 죽음의 조류가 끝나면 바
 로 영생의 조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
 구 땅 위에서 죽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
 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7
 천 년대까지 다 이루어지고 7천 년대부
 터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무궁토
 록 날아다니고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
 리게 되어 있습니다.

그것이 싫다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
 만, 그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원무
 궁토록 날아다니면서 영원무궁토록 행
 복을 누린다는 건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
 사실인데다가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
 면 그야말로 더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없
 는 극치의 좋은 세상입니다. 마음만 먹으



구세주 조희성님

면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고 마음 안 먹으
 면 안 나타나고.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전
 부 구세주와 같이 됩니다. 구세주의 자격
 이 바로 전지전능자입니다.

진짜 구세주가 나타나서 사람을 하 남으로 만들고 있어

전지전능자를 이제 이 승리제단에서
 키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지전능자가
 되면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다. 낱고 싶
 으면 낱고 저 날나라 가고 싶으면 날나라
 가고 별나라 가고 싶으면 별나라 가고 그
 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 사람 말
 씬을 100% 믿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, 설
 마 그게 될까 하는 사람은 안됩니다. 백날
 가봐야 사람으로 있다가 땅속에 들어가
 고 맙니다.

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세주와 더불어
 한몸이 되어서 구세주와 더불어 똑같은
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성경에 여러

가지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
 된 것은,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것
 이므로 그러고도 오늘날 구세주의 말이
 진짜 말이고 구세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
 지게 되어 있습니다.

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 진짜 구세주가
 나타나서 지금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역
 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사람을 하나님 만
 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
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
 니다.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신이고 하
 나님은 정결하기 그지없는 깨끗한 신입니
 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
 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야
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, 인간의 마음 상태,
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
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.

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이 다른 점이 첫
 째 무엇이나 하면,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
 함이 없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

가장 특출한 성품입니다. 그러니까 한번
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
 서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런 성품이 있
 습니다. 그래서 아주 인내력이 말로 할 수
 없이 강합니다. 한번 걸으면 끝까지 걷는,
 한번 제단에 나오면 끝까지 제단 나오는,
 하루라도 빠지면 흠집이 납니다. 나오다
 가 하루라도 빠지면 흠집이 나서 결국은
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.

다니엘서 12장에 써어 있습니다. “매
 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당하
 라.”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를
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. 매일 드리는 번
 제라는 것은 매일 예배 보는 때가 오
 는데, 하루라도 빠지면 멸망당한다’는 것은
 죽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
 바쁜 일이 있어도 제단 쌓고 그 일을 하
 면서 그렇지 않으면 꼭 어쩔 수 없이 바
 쁜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
 와서 예배를 봐야 됩니다.

이 사람이 이미 초창기에 이 말씀을 했
 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저랬다
 하지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. 천년만년 가
 도 똑같습니다.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
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. 여기가 바로 매일
 제단을 쌓는 장소이고 여기가 바로 하
 나님 되는 훈련장입니다. 하나님이 되려면
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.

연속적으로 기도생활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

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력이 강한 신이
 기 때문에 인내력이 없는 하나님이 될
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인내력이 있는 사람
 은 아주 만부득이 해서 바빠서 오전 예배
 참석을 못하면 꼭 저녁에 와서 예배 보게
 되어 있습니다. 제단에 나와서 예배 비디
 오가 틀어지지 않으면 예배 비디오가 틀
 어질 때까지 기도문 찬송을 부르는 겁니
 다. 여러분들이 영생의 생명이 살아 활동
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, 영생의 생명이 중
 지 상태에 있으면 그는 영생과는 상관
 없습니다. 예배를 매일 보는 사람은 반드
 시 영생입니다.

영생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예배를 보

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
 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로 영생입니다.
 그렇지 않으면 영생과는 상관 없습니
 다.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 속
 에 꾸준히 기도생활을 연관을 해서 연
 속적으로 기도생활을 한 사람과 기도생
 활을 연속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과의
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여
 러분들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
 다. 역시 찬송도 꼭조 있는 기도라고 했
 죠? 옛날 영모님이 그랬는데 그것 맞는
 말씀입니다.

상달된 기도

찬송도 바로 꼭조 있는 기도입니다. 그
 령기 때문에 꼭조 있는 기도문 찬송은 이
 건 100% 기도생활을 하는 겁니다. 그래
 서 여러분들 그 기도문 가사를 외울 수
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붙들던 것입
 니다. 우리 다시 한번 기도문 찬송을 부름
 시다. 「기도문 찬송」(7회 반복)

입술로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마음
 속으로,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을
 해가지고 성령의 도기로 짓이겨서 그다
 음에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그다음에 성
 령의 불로 태워서 유향불로 박멸소탕 박
 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’ 이걸 하게 되
 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. 마귀가 완전
 히 타서 누런내가 나는 것입니다. 그게 바
 로 상달된 기도입니다.

상달되지 아니한 기도는 이 생각, 저 생
 각, 해가면서 하나씩 상달이 되지 않는
 것입니다. 이 기도문 찬송을 부르면, 누
 가 마귀를 죽이느냐 하면 구세주가 죽여
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세주가 앞에 있
 다고 해서 죽여주고 앞에 없다고 해서 안
 죽이는 게 아닙니다. 구세주는 무소부재
 한 존재, 말하자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.
 여러분들 집에 가도 구세주가 있고 제단
 와서 앉아 있어도 구세주가 있고 누 구세
 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*

본부제단(2023년 9월 16일 토요일) 예배 말씀

동영상 말씀 재시청
<https://www.victor.or.kr/sub401>

[연재]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



《6장 40년의 광야생활》 (13)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

(13)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

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
 하는 자에게 말씀하기를, “내가 너희의
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
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
 같게 하리니.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.
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
 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.”하고
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.

그런데 고향의 손자 고라가 하나님의
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, 그는 르우벤
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
 렛의 아들 온과 함께 세력을 규합하여
 당을 짓고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
 자로 세운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.

1. 모세와 고라: 레위 지파에는 게르
 손 자손과 고향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
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레
 위의 둘째 아들 고향 가문은 아르람과
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에 의해 계
 승되었습니다. 모세는 아르람의 아들
 이요,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
 다. 따라서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임
 을 알 수 있습니다.

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가려져 있는데,
 고라 자신이 모세를 대적하고 싶어서 대
 적한 것은 아닙니다. 고라는 ‘사람이면
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’는 사
 실을 깨달았던 선각자였습니다. 그러므
 로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
 람들이 다 기록하라는 진리에 가까이 다
 가갔던 자입니다.

스바냐 3장 17절
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

한편 나라는 주제의식이 선악과요 마
 귀의 영인데, 그 마귀가 ‘사람 속에 거룩
 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’는 사실을 수
 천 년 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. 그런데
 고라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자,
 마귀는 고라의 마음을 점령하여 모세를
 대적하게끔 주장하였습니다.

회중의 지휘관 250명과 세력을 규합
 한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였습
 니다.

“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
 있으. 온 회중 각자가 다 기록하고, 그들

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, 어찌하여
 당신들은 여호와와 회중 위에 군림하여
 스스로 높이려고 하오?”

고라의 말을 듣고 모세는 급히 땅에
 엎드렸습니다.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
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가리켜 그들보
 다 높은 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
 었던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
 고라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
 고 오히려 땅에 엎드림으로써 가장 낮은
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

이때 마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왜
 냐하면 마귀는 비위를 거스르는 고라의
 말을 들은 모세가 틀림없이 역경(逆情)
 을 내고 권세를 이용한 저주의 말을 쓸
 아낼 줄 예상하였는데, 그것이 빗나갔기
 때문입니다. 모세를 꺾지 못한 마귀는
 그 분풀이로 땅을 벌려 그 입을 열고 자
 신의 수족처럼 이용했던 고라와 그에 속
 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
 려고 작정하였습니다.

마귀의 이러한 계획을 내다보신 하
 남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, “너희 두 사

람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.
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순식간에 멸하게
 될 것이니라.”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
모세와 아론 역시 고라와 마찬가지로
 ‘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존
 재한다’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.
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아뢰기를,
 “하나님여,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
 님이며,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 온
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?”하고 자비를
 구했습니다. (민수기 16장 22절)

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심령이 완
 악해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구할 수
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
 말씀하셨습니다.

“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
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
 떠나라 하라.”

그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
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 물러
 섰습니다.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땅이 갈
 라지면서 입을 열고 고라와 고라에게 가
 담한 일당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



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(민16:32)

채로 삼켰습니다. 그와 동시에 공중권세
 잡은 마귀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,
 향로를 들고 나와 분향하려던 회중의 지
 휘관 250명을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.

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마귀
 의 율법에 걸려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날
 줄 미리 아시고, 너희는 고향 족속의 대
 (代)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
 지니”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
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. (민수기 4:18)

예언한 말씀대로 고향의 손자 고라는
 마귀의 밥이 되었지만, 하나님께서는 고
 라의 아들들을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셨
 고 그들의 후손에서 선지자 사무엘이
 나왔던 것입니다. 그뿐만 아니라 고라의
 자손 중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
 여호와를 찬송하는 선가대장 헤만이 나

왔는데, 그는 사무엘의 손자이기도 합니
 다. 또 고라의 자손 중에 에비아삼의 증
 손자 살룸은 그의 친척과 함께 다윗의
 명을 받고 성막의 문지기가 되었고, 그
 살룸의 아들 맛디디는 제사의 떡을 굽는
 요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.

역대상 6장
 22절: 고향(고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
 아들은 암미나답(이스할)이요
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맛실
 이요
 (*‘암미나답’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
 아론의 장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
 된 표기라 할 수 있다. 역대상 6장 38절
 에 고향의 아들은 이스할임*)

(다음호에 계속) 안철라